■올 대학 졸업생 취업자 vs 미취업자 '스펙' 살펴보니

▲스펙(SPEC)=제품설명서 (Specification)의 약자. 젊은층 사이에선 학점·영어 성적·어학연수 경험 등 자신의 '이력'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이력 차이, 취업 명암 갈랐다

취업자		미취업자
670점	토익 평균	631점
22.8%	인턴 경험	16%
20.3%	대회 입상	17.4%

전남대·조선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졸업식을 마쳤다. 하지만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끼리도 명암(明暗)이 극명하게 갈라졌다. 일자리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대 5'(취업 때까지 학교에 머무는 사람)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과 구직 중인 졸업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취업전문기업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26일 올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취업을 한 325명과 미취업자 910명 등 1천235명의 평균 스펙을 비교한 결과, 토익점수·인턴경험·공모전 입상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토익점수의 경우 취업한 졸업생이 평균 670점으로 미취업 졸업생 평균 631점과 39점 차이가 났다.

인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취업 졸업생이 22.8%, 미취업 졸업생이 16.0%으로 나타나 실무경험이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최근 기업들의 경향을 반영했다. 공모전 등 각종 대회 입상자 비율은 취업 졸업생이 20.3%로 미취업 졸업생 17.4%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다른 항목에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차이가 없거나 그리 크지 않았다. 학점의 경우 취업한 졸업생과 미취업 졸업생 모두 4.5점 만점에 평균 3.5점, 보유한 자격증 수도 평균 2.1개로 똑같았다.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비율도 취업자는 25.2%, 미취업 졸업생은 24.8%로 비슷했다.

출신대학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 33.2% ▲비수도권 대학 22.4%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돼 지방대생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의 평균 토익점수는 ▲외국계 기업(840점) ▲대기업(728점) ▲중소기업(691점) ▲공기업(661점) 등의 순이었다. 공모전 등 각종대회 입상자 비율은 ▲외국계 기업(50.0%) ▲중소기업(21.0%) ▲대기업(20.4%) ▲공기업 및 중견기업(14.8%) 등이다.

어학연수 경험자 비율은 ▲외국계 기업(50.0%) ▲공기업(44.4%) ▲대기업(33.3%) 순으로 집계됐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기업체들이 학점·어학연수 경험보다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고 있다"며 "학점·자격증 등 일부 스펙에서 뒤지더라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 인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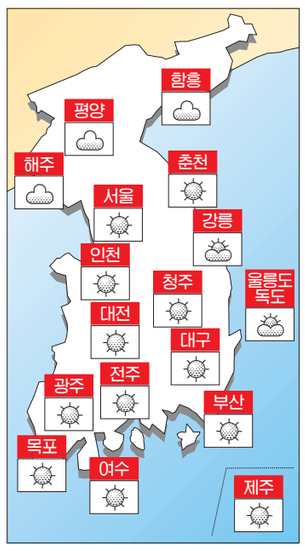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아침 안개 '스몰스몰'

2월 27일 (음 1월 10일) ◇전국날씨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으나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2~15℃
목포	맑음	4~13℃
여수	맑음	6~13℃
완도	맑음	3~16℃
구례	맑음	-1~16℃
해남	맑음	0~15℃
장흥	맑음	-1~15℃
고흥	맑음	3~15℃
순천	맑음	-1~16℃
영광	맑음	2~13℃
진도	맑음	2~16℃
전주	구름조금	2~15℃
남원	구름조금	1~15℃
정읍	구름조금	2~14℃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0.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2.0m

목포 밀물 11:04 22:39 썰물 02:55 17:04
여수 밀물 06:46 18:48 썰물 13:11 --:--

▲해뜸 07:06 ▲해짐 18:25 ▲달뜸 13:42 ▲달짐 04:1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수)	3/1(목)	2(금)	3(토)	4(일)	5(월)
날 씨						
최저/최고	3/17	4/18	4/15	8/13	8/13	7/14

학교폭력 피해 학생 경호원 지원

폭력 많은 학교엔 경찰 배치키로

5대폭력 관계장관 회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학생에게 경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를 대신한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에서 2년 동안 추진해온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피해 예방 및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민간경호업체나 경호자원봉사대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등하교길 및 취약시간대에 학생들의 귀가를 돕는다.

초·중등 학생용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면 모든 학생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원은 5년마다 1회 이상 생활지도 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토록 했다. 또 다음달 12일부터 6월11일까지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시범운영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는 생활지도 담당 교원과 법률·의료·복지·경호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이 가동돼 조사와 자문, 조언, 상담과 치유 등의 활동을 편다.

/연합뉴스

특수학교 "입학 서약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전남 10개교를 비롯한 전국 62개 특수학교가 '재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입학 서약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특수학교 학칙 중 인권침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진정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서약서 제출이 학칙에 명시된 전체 62개 학교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먼저 알려왔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장애학생의 교육은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데 학부모에게 모든 사고를 책임지우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서약서 제출 학칙 규정을 삭제한 학교는 광주의 경우 세광학교·은혜학교·인화학교 등 3개교다. 전남은 순천 선혜학교·목포 연성학교·여수 여명학교 등 7개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6일 광주시교육정보원에서 열린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영국 인권교육 전문가인 휴 스타키 교수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권교육, 교과과정 포함돼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모색 워크숍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26일 광주시교육정보원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주한 영국대사관이 공동 주관한 이날 워크숍에는 광주·전남지역 교사와 인권교육 관련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한 영국대사 인터뷰 20면〉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영국의 인권교육 전문가인 휴 스타키(Hugh Starkey) 런던대 교육대학 교수는 "인권교육이 정규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며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학생들은 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학생회 구성과 운영, 교육당국의 권리존중 프로그램 이행, 학습자와 교사 간의 공식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광주대 이용교 교수는 "한국은 1990년에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했지만 아동권리가 학교에서 구현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었다"며 "한국 학교의 경우 성차별과 연령차별 등 관습에 따른 인권교육의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위가 손상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교사들이 있다"며 "학교가 학생에게 인권교육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교수방법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남대 정경수 교수는 "한국의 열악하고 낙후된 학교 인권교육의 현실을 볼 때 국내법에 의한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법 제도화가 이뤄지면 학교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한달 가동중단 영광원전 300억 손실

한 달간 가동중단에 들어간 영광원자력 1호기의 고장 여파는 어느 정도일까?

시간당 990 ㎿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 1호기가 발전기 코일 이상으로 멈춘 것은 18일 오후 6시41분. 현재 국내 기술진이 코일 정비를 하고 있으나 정상 가동을 하려면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1986년부터 가동된 원전 1호기 하루 매출은 약 10억원. 원자력본부 측은 이번 고장으로 인해 300억원 가량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장으로 인해 방사능 누출은 없고, 전력 공급에도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고리와 울진 원자력발전소 및 서인천화력발전소 등에서 전력 공급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편 영광 원전은 총 6기로, 지난해 원전 2·3호기가 고장 나 각각 39시간 동안 가동이 중지됐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지구온난화로 고산식물 크게 줄듯

누른종덩굴

지구온난화로 연평균 기온이 상승할 경우 기존 한반도 고산식물의 서식 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식물종을 찾기 위해 고산 습지인 대암산(강원 인제) 용늪과 고산 초지인 소백산(충북 단양) 정상에서 토양을 채취, 온도에 따른 식물 발아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연평균 기온이 2도 올라갈 경우 기존 고산식물인 꽃쥐손이·누른종덩굴·자주종덩굴 등의 서식 면적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암산 용늪은 참바늘골과 물골풀이 기온 상승으로 발아 빈도가 증가해 전체적인 종 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백산 정상의 경우 산쥐손이와 노루오줌과 같은 일부 종이 늘어났다.

기온 상승으로 개체수가 대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식물은 소백산의 경우 양지꽃·진주고추나물·산쥐손이·실새풀 등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